

전주향교 완영책판(完營册板) 보존현황 및 활용방안

홍성덕*, 김철배**

목 차

- I. 머리말
- II. 조선시대 전라감영의 서적출판
- III. 전주향교 완영책판 소장경위
- IV. 전주향교 완영책판 보존현황
- V. 완영책판의 활용방안
- VI. 맺음말

〈 요약 〉

본 연구는 전주향교에 소장되어 있는 完營册板에 대한 조사연구이다. 완영책판은 조선시대 전라감영에서 서적을 간행할 때 사용하던 책판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朱子大全』 『性理大全』 등 총 11종 4,290권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조사한 결과 769개가 많은 총 10종 5,059개의 책판이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주향교에 소장되어 있는 완영책판의 종류는 『資治通鑑綱目』, 『東醫寶鑑』, 『朱子大全』, 『栗谷全書』, 『性理大全』, 『增修無冤錄諺解』, 『史記』, 『史略』, 『湖南三綱錄』, 『朱書百選』 등 총 10종이다. 이들 서적을 모두 제작할 경우 책판은 10,621개 21,238면이 필요하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장판각 소장 완영책판의 현존율은 책판 47.6%, 面數 46.3%이다. 또한 중복된 면이 219면이므로 실제적인 면수 현존율은 45.2%이다.

육안조사에 의한 총해피해의 정도는 5.51% 258개이며, 90.19%의 책판 4,562개에서는 쪼개짐이나 균열의 피해가 조사되었다. 이런 이유는, 책판 좌우에 있는 마구리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무리한 압력을 가하여 책판과 마구리를 고정하였던 철심부를 중심으로 가로로 쪼개지거나 균열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마구리의 不存率이 92.2%인 점과 연관되어 있다. 탈점자와 같은 補刻의 흔적은 2.89%인 292면에서 발견되었으며, 보각한 편 4점이 책판 이송과정에서 수습되었다. 보각의 경우 총 216면이 2개 이상 보각되었고, 동일책판이 2개 보각된 것은 213개, 동일책판이 3개 보각된 것은 3개가 각각 보존되어 있다.

완영책판은 조선시대 지방 관청에서 사용한 책판으로는 유일한 것으로 문화재적 가치는 매우 크다. 특히 전라도 지역의 기록문화전통과 연계해 볼 때 완영책판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심도있는 조사연구가 요망된다.

[주제어] 조선시대 출판문화, 전라감영, 전주향교, 목판, 책판, 완영목판, 완영책판, 전주향교

* 전북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제1저자)

** 전북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과정(공동저자)

(접수일:2005. 4. 18, 심사일:2005. 5. 27, 심사완료일:2005. 6. 4)

I. 머리말

‘完營冊板’이란 조선시대 전라도 감영에서 서적을 출간할 때 사용한 목판을 가리킨다. 넓은 의미의 목판은 목판화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서적을 간행할 때 사용한 목판의 경우 冊板이라 한다.

조선시대 지방 감영의 서적간행은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조선시대 관에서 사용하였던 책판들 중 그 구체적인 출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1만7천821점의 교서관 책판¹⁾이 대표적일 뿐, 지방감영에서 서적간행에 사용했던 책판의 존재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는 바가 없다. 그런데 전주향교 장판각에는 조선시대 전라감영에서 사용했던 책판 5,059개가 보존되어 있다. 대외적으로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이 전라감영 책판은 지방감영에서 사용했던 책판으로 유일한 것이다.

전라도 지역은 역사적으로 기록문화전통이 강했던 곳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실제 전라도는 기록문화가 융성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코드를 가지고 있으며, 전주향교 완영책판도 그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전라도 지역의 목판인쇄문화에 대한 연구는 1983년 전주지방에서 간행된 목판본 서적을 지역별, 판원별, 주제별 분류 분석한 강혜영의 연구²⁾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0년 호남 지역 전적문화에 포괄적 연구³⁾가 유기석에 의해 발표되면서 한단계 상승하였다. 1999년 김치우는 조선전기 지방에서 간행된 서적실태를 분석하여⁴⁾ 조선전기 전라도는 31개 지방 171종의 책판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이 중 전존본은 33종으로 경상도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이외에도 옥영정의 「호남지방 목활자본 연구」(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등이 발표되었다. 서지학적 분석 이외의 연구로는 이태영의 「전라감영의 인쇄문화가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⁵⁾이 대표적이다. 이 연구는 전라도 지역의 인쇄문화전통과 지역사회의 영향에 대해 개괄적으로 분석하고 완판본의 역사문화적 가치에 대해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같이 선행연구는 호남지역이나 전주일원의 서적간행에 관한 것으로 전라감영의 서적간행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시도되지 않았다.

전라감영의 서적간행실태에 대한 연구는 최지선의 「조선시대 호남관찰영본에 관한 서지적

1) 서울대학교 규장각 연혁(http://kyujanggak.snu.ac.kr/about/about02_1.jsp) 참조.

2) 강혜영, 1983. 「조선조 전주지방 목판인쇄문화고」 『국회도서관보』 167

3) 유기석, 1990. 「호남지역 전적문화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김치우, 1999. 「조선조 전기 지방간본의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 옥영정, 2002. 「호남지방 목활자본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 이태영, 2002. 「전라감영의 인쇄문화가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 『향토사연구』 제13·14집

연구⁷⁾뿐이다. 최지선은 책판목록에 수록된 호남관찰영본과 주요 도서관에 소장된 傳存本을 조사하여 주제별, 형태별로 분석하였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호남관찰영본이 수록된 책판목록은 『諸道冊板錄』 33종을 비롯하여 총 7개이며, 이들 목록을 종합한 결과 총 71종의 서적이 간행되었음을 밝혔다. 아울러 이들 71종 중 25종의 전존본을 확인하여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최지선의 연구는 현존하는 전주향교 소장 완영책판의 분석이 누락되어 실제 현존 확인이 가능한 완영판 전적조사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전라감영의 서적출판에 대하여 개괄하고, 당시 출판에 사용한 책판들의 실태 조사와 책판별 현존 분석, 육안관찰에 의한 보존현황을 알아볼 것이다. 또한 문화자산으로서의 완영책판을 지역연구 및 지역정체성 수립 등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조선시대 전라감영의 서적 출판

조선시대 전라도 지역은 경상도 다음으로 많은 책이 간행된 지역이다. 유기석의 연구⁸⁾에 의하면 전라도 지방에서 처음으로 서적을 간행한 것은 1048년(고려 문종 2)으로, 당시 남원부사 李靖恭이 「三禮圖」 54판과 「孫卿子書」 92개판을 올려서 秘閣에 두게 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1296년(고려 충렬왕 21) 제주 묘련사에서 「金光明經文句解」를, 1391년(고려 공양왕 3)에는 佛祖三經을 중간하여 전주 圓岳寺에 보관했다고 한다. 그러나 전라도 지역의 서적간행이나 기록 문화 전통⁹⁾은 고려 이전부터 강하게 남아있었다.

“唐나라 李勣이 고구려를 평정하고는 東方의 모든 서적을 平壤에다 모아놓고 우리나라의 文物이 중국에 뒤지지 않는 것을 시기하여 모두 불태워버렸으며, 신라 말엽에 甄蓋이 完山(지금의 全州지방)을 점령하고는 三國의 모든 서적을 실어다 놓았었는데, 그가 패망하게 되자 모두 불타 재가 되었으니, 이것이 3천년 동안 두 번의 큰 厄일세.”(李德懋, 『雅亭遺稿』 卷 3 紀年兒覽 序)¹⁰⁾

7) 최지선, 2005. 「조선시대 호남관찰영본에 관한 서지적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 유기석, 1990. 「호남지역 전적문화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 이외에 ①전주사고는 성종 4년(1473)에서 임진왜란까지 119년간 존속하였다. 임진왜란시 전국 4개의 사고가 소실되었지만 전주사고의 실록은 이 지역 선비들의 노력으로 보존되었으며 후에 전주사고의 실록을 필사하여 태백산, 정족산, 적상산, 오대산 등에 보관하였다. ②1800년대 이후 전주에서 간행된 한글고전소설은 국문학에서 흔히 일컫는 완판본으로서 경판본보다 더욱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책방거리는 한글고전소설의 성지이다. 전라도의 기록문화전통에 대해서는 전주문화사랑회 편, 『전라북도의 기록문화전통과 현대적 계승방안』

10) 조법중, 2003. 「전라북도 후백제, 고려시대 기록문화전통」 『전라북도의 기록문화전통과 현대적 계승방안』, 전주

이덕무에 의하면, 견훤은 900년 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삼국시대 때부터 전해내려 온 모든 책을 모아 놓았다고 한다. 그는 후백제의 멸망으로 소중한 서적들이 불태워 없어진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와같이 지역의 역사적 경험은 조선시대의 서적간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 전라감영이 위치한 전주 지역은 서적간행의 주요지역으로 부상하게 된다. 가장 많은 서적이 간행된 경상도¹¹⁾의 경우 감영이 상주에서 대구로 이동한 반면, 전라도의 감영은 조선시대 전 기간 동안 전주에 있었다. 따라서 단일 도시로서 전주는 가장 많은 책이 간행된 곳¹²⁾이었다. 이처럼 전주지역이 출판중심도시로 발전한 원인은, 첫째 전주지방이 노령산맥의 지맥인 고덕산과 기령봉을 배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판재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었고, 둘째 전주는 한지 특산지이며, 셋째 수공업이 발달한 곳으로 刻手 등의 기술인력이 있었다는 점 등을 거론하고 있다¹³⁾. 이외에 서적간행은 수요와 공급의 연계선상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무엇보다 이 지역에 서적 수요의 문화향유계층이 일정하게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후백제 이래 이 지역은 ‘의관 문물’의 고장으로서 전통이 강했으며¹⁴⁾, 조선전기 지방에서는 경상도 다음으로 많은 문과급제자를 배출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의 서적간행 역시 비례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¹⁵⁾.

조선시대 전라감영에서 서적이 간행된 기록은 총 60회에 달한다¹⁶⁾. 『조선왕조실록』과 『한국서지연표』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전라도에서의 서적간행 회수를 왕대별로 정리하면, 세종대 11회, 단종대 1회, 세조대 7회, 성종대 5회, 명종대 1회, 선조대 5회, 인조대 1회, 현종대 2회, 숙종

문화사학회, 16쪽 재인용. 이외에도 “책의 수난이 어찌 중국에만 국한되었겠는가? 책이란 고금(古今)의 큰 보배이므로 때로는 조물주의 시기를 받기 때문에 항상 재난이 있는가 보다. 우리나라에도 책의 수난이 있었는데, 대강만 헤아려도 열 가지는 된다. 唐나라 李勣이 高句麗를 침략하고는 국내의 典籍을 平壤에 모아 놓은 다음 고구려의 문물이 중국에 뒤지지 않는 것을 시기하여 모두 불태운 것이 그 하나이다. 新羅 말기에 甄萱이 完山州(完山州)에 활거하여 삼국 시대의 전해 내려오던 책을 모조리 옮겨다 두었는데, 그가 패망하자 모조리 불태운 것이 그 둘째이다.”(이규경,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 4 經史雜類 2 典籍雜說)

- 11) 『고사촬요』(선조 1년 을해자본)에 의하면 경상도지방은 33개 지방에서 222종의 책판, 전라도지방은 31개 지방 166종의 책판이 수록되어 있다.
- 12) 이동희, 2005. 「전라도 완영책판의 인출(印出)과 보존」 『전주향교 장관각 목판정리사업 최종보고서』, 전북대학교 박물관
- 13) 유태일, 1981. 『완판방각소설의 문헌학적 연구』, 학문사
- 14) 전라북도의 기록문화전통에 대해서는 전주문화사학회 편, 『앞의 책』(2003) 참조.
- 15) 전라도 출신의 문과급제자는 16세기까지는 경상도 237명 다음으로 많은 171명의 급제자를 배출하고 있다. 반면 후기에는 570명으로 경상도(938명), 평안도(839명), 충청도(782명)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여립 모반사건의 영향 때문이라고 한다.(이회권, 2005. 『증보판, 역사로 보는 전라도』, 신아출판사) 때문에 조선후기에는 과거급제를 위한 교육서보다 방각본 등의 판매용 소설의 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 16) 최지선, 2005. 「조선시대 호남관찰영본에 관한 서지적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대 1회, 영조대 13회, 정조대 7회, 순조대 2회, 현종대 3회, 철종대 1회 등이다. 가장 많은 기록이 보이는 것은 영조대이며, 세종대-정조대 순으로 간행회수기사가 보인다.

한편 조선시대 전라감영의 책판목록을 수록하고 있는 책판록 등에서 전라감영의 책판목록을 정리해 보기에 앞서 전라감영 책판목록이 수록된 책판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⁷⁾.

『諸道冊板錄』: 1750년(영조 26) 『삼남책판』을 토대로 재조사하여 集錄한 것으로 전라감영 및 34개 지역, 충청감영 및 18개 지역, 경상감영 및 27개 지역, 함경감영에 소장된 책판들을 수록되어 있다.

『冊板錄』: 1780년(정조 4)경에 간인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과 1814년(순조 14) 이후에 편찬된 것 두 종류가 있으며, 전라도 지역의 각 고을에 보관된 책판을 기록하고, 필사본 속의 일부분에다 기록한 것으로 뽑아서 영인한 사본으로 1책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完營客舍冊板目錄』: 1885년(고종 22) 박원응이 필사한 것으로 필사본 책판록 중 제18~25장에 포함되어 있다.

『龍虎間錄』: 송근수가 편저한 것으로 추정되는 총 23책의 필사본으로, 서체와 필사자가 일정하지 않다. 수록 범위는 1800년(순조 즉위) 초부터 고종 중기 개항에 이르는 80년간이다.

『各道冊板目錄』: 1778년(정조 2)경에 필사된 것과 1840년(현종 6)에 판찬된 것 등 두 종류가 전하며 각 道에 보존되고 있는 책판의 목록집이다.

『鑲板考』: 서유구가 정조의 명을 받아 편찬한 것으로 7권 3책으로 된 필사본이다. 각도의 군현별 책판목록과는 달리 御撰과 御定을 별치하고 그다음부터 경, 사, 자, 집의 四部法으로 체계화하고 있다.

『林園十六志』: 서유구가 저술한 것으로 『林園經濟志』라고도 하며 113권 52책으로 되어 있다.

이들 책판목록에 수록된 조선시대 전라감영에 보존된 책판의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7) 위와 같음.

〈표 1〉 조선시대 전라감영 책판목록 대비표

번호	冊名	目錄	諸道 冊板錄	冊板錄	完營客舍 冊板目錄	龍湖 閒錄	各道冊 板目錄	鑲板考	林園 十六志	비 고
1	加髻新禁事目			●	○ ¹⁾	○				
2	簡易集		○	○●	○	○		○ ²⁾	○	
3	綱目		○	○●	○	○	○			
4	訓義資治通鑑綱目							○	○	
5	經世問答		○	○●	○	○	○	○		
6	孤竹集						○			
7	達城碑誌錄						○			
8	大典通編		○	○●	○	○		○	○	
9	道學正脈						○			자체목판
10	東岳集		○	●	○	○		○	○	자체목판
11	東岳集并續						○			
12	東醫寶鑑		○	○●	○	○	○	○	○	목활자번각
13	同春年報						○			
14	屯巖集		○	○●	○	○	○	○	○	자체목판
15	鳴巖集						○			
16	明義錄		○	○●	○	○	○	○		금속활자번각
17	明義錄諺解		○	○●	○	○	○	○		
18	白江集			○●	○	○	○			
19	白洲集						○			
20	百拙齋集						○			자체목판
21	史記英選		○	○● ³⁾	○ ³⁾	○ ³⁾		○		
22	史記評林		○	○●	○	○	○	○	○	
23	四禮要覽				○	○ ⁴⁾				
24	三韻聲彙		○	○●	○	○	○			목판본번각
25	喪禮補編		○	○●	○	○	○	○ ⁵⁾	○ ⁵⁾	
26	喪禮備要						○			
27	石洲集			●	○	○	○			
28	性理大全		○	○●	○	○	○		○	
29	性理大全書							○		
30	小學諺解							○		
31	續明義錄		○	○●	○	○	○	○		금속활자번각
32	續明義錄諺解		○	○●	○	○	○	○		

번호	冊名	目錄	諸道冊板錄	冊板錄	完營客舍冊板目錄	龍湖閒錄	各道冊板目錄	鏤板考	林園十六志	비고
33	新刊史略				○	○				
34	梁大司馬實記		○							
35	楊州趙氏族譜						○			자체목각
36	御製追慕錄		○	○●	○	○	○			금속활자번각
37	御定綸音		○ ⁶⁾	○		○				
38	聯珠集						○			
39	永世追慕錄 續錄							○		
40	月軒集		○	○●	○	○	○	○	○	
41	陸奏約選		○	○●	○	○				금속활자번각
42	栗谷全書				○	○				
43	疑禮問解						○			
44	醫學正傳		○		○	○	○	○	○	목판본번각
45	二樂亭集						○			
46	忍齋集						○			
47	潛齋集		○					○		
48	潛齋稿			○	○	○ ⁷⁾	○		○	
49	潛齋稿集			●						
50	長吟集						○			
51	全韻玉篇									
52	靜觀齋集						○			
53	正音通釋		○	○●	○	○		○ ⁸⁾	○ ⁸⁾	목판본번각
54	左傳		○							
55	朱書百選		○	○● ⁹⁾	○ ⁹⁾	○ ⁹⁾				금속활자번각
56	朱子百選							○		
57	朱子大全		○	○●	○	○	○	○ ¹⁰⁾	○ ¹¹⁾	자체목판 금속활자번각
58	竹西集						○			
59	增修無?錄		○ ¹²⁾	○●	○	○				
60	蒼霞集		○	○●	○	○	○	○	○	
61	靑溪集						○			
62	七書				○					
63	豊山洪氏族譜		○			○	○			자체목판
64	鄉禮合編		○		○	○				금속활자번각
65	化堂集						○			

번호	冊名	目錄	諸道冊板錄	冊板錄	完營客舍冊板目錄	龍湖閒錄	各道冊板目錄	鏤板考	林園十六志	비고
66	皇華集		○	○●	○	○	○	○	○	
67	厚齋集		○		○	○ ⁷⁾	○	○	○	
68	訓義小學具諺解		○							
69	訓義小學				○	○	○			
70	訓義小學大全							○	○	
71	欽恤典則		○	○●	○	○	○	○		
			35종	28(32)종	38종	40종	44종	28종	18종	

* 1) 加髡新禁事日論音 2) 簡易文集 3) 御定史記英選 4) 四禮便覽 5) 國朝喪禮補編 6) 御製編音 7) 完峽 향에 수록 8) 華東正音通釋韻考 9) 御定朱書百選 10) 朱子文集, 續集, 別集, 遺集, 附錄 11) 朱子大全集 12) 增補無冤錄 ● 完營客舍冊板不完峽 향

** 최지선, 2005, 「조선시대 호남관찰영본에 관한 서지적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에서 재정리

이외에도 각종 책판목록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완영판 전적으로 확인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⁸⁾. 『諭諸道道臣論音』(1794, 목판본번각본), 『諭中外大小民人等斥邪論音』(1840, 금속활자본번각), 『東賢奏議』(1734), 『續經筵故事』(1734), 『尤菴先生言行錄』(1900, 목활자본), 『大明律』(1821), 『警民編』(1745, 1748, 목판본번각본), 『種諸譜』(1834, 목활자본), 『鍼灸經驗方』(1644), 『杜律分韻』(1850, 금속활자본번각), 『浣巖集』(1765, 목판본번각본) 등의 서적은 완영판으로 확인된 것이나 책판목록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한편, 『전주향교지』에 기록되어 있는 보유책판목록과 비교해 보면, 『小學』, 『大學』, 『中庸』, 『論語』, 『孟子』, 『詩傳』, 『書傳』, 『周易』, 『東文選』, 『八家精選』, 『史要』 등의 책판이 현존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데 위의 책판목록에는 이들 서적명이 보이지 않는다.

이상으로 조선시대 전라감영의 책판목록과 서적간행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러나 문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이들 책판 이외에 『湖南三綱錄』과 같이 위의 책판 목록 이후에 만들어진 책판과 1920년대 당시 현존했다고 하는 四書三經을 비롯한 총 11종의 책판목록을 더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 전라감영에서 간행한 서적들에 관한 연구는 이들 책을 인출할 때 사용한 책판의 현존실태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18) 최지선, 앞의 논문에서 재정리.

Ⅲ. 전주향교 완영책판 소장경위

완영책판은 전라감영에서 사용했던 책판이므로, 원래는 전라감영 내에 보관되어 있었다. 현존하는 고지도¹⁹⁾에 의하면 완영책판은 전주객사의 서쪽편에 있는 책판고에 보존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서적간행과 관련한 印出房²⁰⁾이 있었으므로, 책판고의 규모나 인출하는 여건에 따라 이곳에도 분산·보존·관리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²¹⁾.

조선시대 지방 8곳에 감영이 있었고, 전라감영 이외에 주로 서적을 간행했던 경상감영, 평안감영 등에도 이와 유사한 보관시설들이 있었을 것인데, 유독 전라감영의 책판만이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먼저, 대한제국기에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책판의 보존 장소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주지하듯 감영 내의 모든 시설은 일제 통감부 시기를 거치면서 근대 지방통치기구 등으로 전환되었고, 1910년 강점 이후에는 일제의 통치기구나 그에 필요한 관사, 창고 등의 부속건물로 용도가 바뀌게 되어 실질적으로 건물 내에 각종 집기나 기록물 등은 무단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전라감영의 책판이 보존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전환 시기에 한발 앞서 책판이 전라감영이 아닌 별도의 건물로 옮겨져 일제 식민정부에의 귀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전주향교지』에 실린 1921년의 「鄉校冊庫重建記」와 1987년 홍두현이 작성한 「尊經閣重建記」를 중심으로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進士 蘇學奎가 1921년에 찬한 「鄉校冊庫重建記」에 의하면 “관찰사 조한국이 또한 官庫를 수색하여 傳하는 모든 서책의 冊目들을 향교로 옮겨 보관케”²²⁾하였다고 기록하여 전주향교로 책판을 옮기도록 한 사람이 전라관찰사였던 조한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한국은 1899년부터 1902년까지 전라도관찰사로 재임한 인물로 대원군 이하응의 외손이다. 1987년 현재의 장경각 건물을 신축할 당시 작성한 「尊經閣重建記」²³⁾에 의하면 광무 3년(1899)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두 자료에 의하면 전주향교로 완영책판을 옮기도록 한 사람은 당시 관찰사였던 조한국이었고,

19) 전북대학교 박물관 소장 「전주부지도」 및 국립전주박물관 소장 「전주부지도」

20) 국립전주박물관 소장 「전주부지도」에는 '印房'으로 표기되어 있다.

21) 전라감영 내에는 이외에도 종이를 제작하던 紙所가 있어, '종이제작 - 서적간행 - 목판보존'이라는 일괄체제가 갖추어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이에 대해서는 이동희, 「전라도 완영책판의 인출(印出)과 보존」 『전주향교 장관각 목판정리사업 최종보고서』(2005, 전북대박물관) 참조).

22) 『전주향교지』, 2004, 761-762.

23) 위의 책, 2004, 764.

그 시기는 1899년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전주향교에 보존된 책판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보존에 노력한 이 지역민들의 노력을 꼽을 수 있다. 주지하듯 전주는 조선전기 全州史庫가 설치된 곳으로 임진·정유왜란을 거치면서 왕조실록과 태조 영정을 보존하기 위한 지역민들의 역사적 경험이 내재된 곳이다. 왜란 이후에도 적상산사고에서의 기록보존의식과 동학농민혁명 당시 태조 영정의 위봉산성 이안 등 ‘역사와 문화’ 자산에 대한 소중한 경험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지역민들의 역사적 경험은 전주향교로 옮겨진 전라감영 책판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향교책고중건기」에 의하면,

“噫라, 어찌하여 근년 이래로 儒風이 부진하고 습속이 투박하며, 겉치레만을 숭상하고 실지는 向學의 뜻이 없어 향교 내 서책의 유실이 많으며, 보존되어 있는 冊板은 오직 朱子大全, 性理大全, 綱目과 栗谷全書 등 뿐이다. 기타 敎本 또한 흩어지고 유실됨이 있으나 수집하는 사람이 없고 책고의 滲漏와 傾頽함을 유지할 힘이 없어 책판들이 썩게 될 지경에 놓인지라. 卞의 紳士 鶴汀臺 吳榮錫씨가 오직 이것을 두려워하여 척연히 일어나 冊庫를 중건하고 흩어진 판본을 갖추어서 소중히 보관토록 하였다.”

고 하여, 유실되는 것이 많아 전주의 유지 오영석이 자신의 사재를 털어 명륜당의 동쪽에 冊庫를 세웠다고 한다.

책고에 보존되던 책판 중 小學과 四書三經은 冊商 卓某씨에게 빌려 주었다가, 경신년(1920) 수해로 유실되었다고 하며, 그후 栗谷全書의 缺版을 유병양이 돈을 내어 補缺하기도 했다. 그러나 책고의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기를 알 수 없으나 책고가 무너져 명륜당 東廡에 책판들을 보관하였다가 1987년 명륜당 서편에 장관각을 신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동무에 보관 중이던 완영책판은 한국전쟁 당시 향교 대성전에 주둔한 북한군들이 책판의 일부를 소각하였다고 하며, 이 과정에서 전주향교의 유림들이 책판 보존에 노력한 결과 그나마 지금처럼 보존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때문인지 현존하는 책판의 손잡이(마구리) 부분은 대부분이 유실되어 남아있지 않다.

이러한 보존과정을 거치면서 완영책판은 산실될 수 밖에 없었다.

1899년 전주향교로 옮긴 완영책판의 수량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존경각중건기」와 「藏版閣의 由來」²⁴⁾의 版本保有錄에 의하면 小學, 大學, 中庸, 論語, 孟子, 詩傳, 書傳, 周易, 朱子大全, 性理大全, 綱目, 栗谷全書, 東文選, 史記評林, 史記, 八家精選, 史要, 無冤錄, 東醫寶鑑, 三綱錄 등을 보존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중 현존하지 않는 것은 小學, 四書三經, 東

24) 위의 책, 2004, 764, 513.

文選, 史記評林, 八家精選, 史要 등이며, 보유록에 없는 것으로는 史略, 朱書百選 2종이다.

IV. 전주향교 완영책판 보존현황

전주향교에 전라감영에서 사용하던 책판이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전주향교로 책판이 이송되어 온 것이 1899년이고, 1987년 장관각이 건립되었음에도, 한 두차례 전시회를 위한 몇 책판의 나들이가 있었을 뿐이다. 완영책판에 대한 문화재 지정의 필요에 의해 지난 99년 道에 문화재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는 정확한 수량 및 책판 종류 등을 먼저 파악한 뒤 재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뒤 시청에서 훈증소독 및 포쇄를 시행하였으나 체계적인 조사없이 그대로 다시 장관각에 재보관하였다.

이렇듯 완영책판은 시민들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었다. 2002년 ‘전주문화사랑회’를 중심으로 시민들과 함께 전주지역의 인쇄·기록문화에 대한 답사를 시작하면서 정기적으로 완판본의 고장 전주 정체성과 완영책판에 대한 시민 교육이 시작되었다. 전주문화사랑회에서는 완영책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시와 도의 관계자들에게 요청했고, 지역 언론의 관심이 모아져서 전주시와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편성, 학술 용역입찰을 하기에 이르렀다.

전북대학교박물관에서는 7천5백여만원에 학술용역을 수주하여 2004년 10월 4일부터 2005년 2월 4일까지(절대공기 90일) 전주향교에 소장되어 있는 완영책판에 대한 정리사업을 수행하였다.

1. 완영책판 조사과정 및 방법

전주향교 완영책판 정리사업은, 향교 내 장관각에 보존되어 있는 책판 전체를 전북대학교박물관으로 이송하여 사전조사 및 준비→책판이송→목록작성→책판별 재배열→책판조사카드작성→분진제거→사진촬영→책판 규격조사→傳存本의 조사→분석 등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작업진행순서별로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사전조사 및 준비

정확한 책판의 수량을 파악하기 위해 장관각 내 서가에 배열된 책판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 결과 5,021개로 파악되었다. 이송을 위한 상자제작 및 공간 확보를 위해 책판의 규격을 샘플 체크하여, 65cm×45cm×350cm의 시트박스를 제작하였다. 장관각내 서가를 이동 재활용할 계획

이었으나, 서가를 전부 분해해야 하는 관계로 책판의 수량을 계산하여 총 40개의 철재(앵글)서가(90cm×30cm×210cm)를 제작 설치하였다.

② 책판이송

책판이송작업은 모두 2일간 진행되었으며, 시트박스 1개 당 15~20개의 책판을 에어캡으로 쌓아 포장하였다. 장관각 내 서가배열순대로 전북대박물관에 재배열한다는 원칙하에 상자 표면에 장관각 서가번호를 표시하여 포장하였으며, 총 324개 상자에 담아 5톤 트럭으로 2회 왕복하였다. 책판을 포장하기 전 곤충에 의한 피해 여부 조사를 위하여 유충 및 포자 등의 샘플채취를 병행하였다.

③ 목록작성·재배열

전북대학교박물관으로 이송을 완료한 뒤 서가별로 조사한 결과 책판별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뒤섞여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전체 책판에 대한 목록조사를 한 뒤 책판별로 분류하여 재배열하였다. 책판별 순서에 의해 재배열을 끝낸 뒤, 각 책판에는 “책판구분코드(영문 略號)-서가 및 단구분-책판 일련번호” 순으로 임시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라벨작업을 완료하였다. 임시고유번호를 부여한 결과 책판의 수량은 사전조사시 5,021개보다 많은 5,059개로 파악되었다. 장관각 서가에 배열되어 있을 당시 전면에 노출되지 않은 책판들로 인하여 그 수량이 늘어난 것이다.

④ 조사카드작성

책판별 보존실태 등의 조사를 위해 조사카드를 인쇄하여 각 책판별, 서각면별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카드는 책판규격, 훼손상태, 보존상태, 기타사항으로 구분하여 일일이 수기입력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조사카드는書刻된 면 전체를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조사카드는 Access프로그램으로 DB화하여, 향후 이미지 정보를 링크하여 조사카드별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⑤ 분진제거

본 조사는 과학적인 보존처리작업이 아닌 전수조사의 성격을 띠는 것이었으므로, 용이한 조사분석을 위하여 쌓여진 분진을 간단한 방법으로 제거하였다. 분진제거에는 에어콤프레샤를 이용 누적된 분진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소독용 알코올(83%)을 분진제거용 솔에 뿌려 책판의 표면에 남은 분진을 처리하였다. 육안으로 충해의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에어콤프레샤의 사용을 억제하여 작업시 책판의 훼손에 주의를 기울였다. 또한 후일의 과학적 분석을

위하여 제거된 분진 등은 별도로 보관하였다.

⑥ 사진촬영 및 이미지 보정

분진이 제거된 책판은 모두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디지털 카메라는 Canon 300D를 사용하였으며, 촬영시 고유번호 카드를 함께 찍어 책판정보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촬영한 이미지는 고유번호로 파일명을 전환하여 책판별 폴더에 저장하였으며, 촬영 완료된 책판 이미지는 Photoshop cs 8.0과 Acdsee 6.0을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이미지 보정은 불필요한 여백을 제거하고 책판의 서각 내용이 분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촬영이 필요한 이미지를 분류하였다.

⑦ 傳存本의 조사

전주향교에 소장된 책판이 전라감영에서 사용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서적을 찾아 서적의 刊記를 확인해야만 하였다. 전체 조사결과 刊記가 새겨진 책판은 『주자대전』 뿐이었으며 나머지 9종류의 책판은 간기가 보존되어 있지 않았다. 전존본 확인을 위하여 각 책판별로 2-3매를 인출하여, 동일한 서적을 찾아 대조하였다. 또한 각 책판의 현존상황을 알기 위해 책판별 권-쪽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完營版 典籍을 조사하여 각 卷數-面數를 조사한 다음 현존하는 책판의 卷數-面數를 대조하여 현존상태를 조사하였다. 특히 관심에서 서적명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四庫全書 DB를 이용하여 서지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서적의 완영판본을 조사하였다.

⑧ 분석

각 책판별 샘플링 작업을 통해 수종 및 가해 곤충에 대한 조사를 일부 진행하였다. 대략적인 조사결과 수종은 자작나무과로 전라도에 자생하는 거제수나무, 사스레나무 혹은 박달나무 종류로 추정하였다. 피해를 일으킨 주요 해충은 바구미과(Curculionidae)의 막대바구미아과(Cossoninae)에 속하며, 국내에서 처음 알려지는 *Hexarthrum brevicorne* Wollaston (자작나무막대바구미 신칭)란 종으로 밝혀졌다²⁵⁾.

25) 수종식별 및 가해곤충 조사, 열적외선 촬영에 의한 부후 조사는 전북대학교 이양수교수가 담당하였으며, 추후 보완조사 연구를 통해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 전주향교 완영책판 보존현황

가. 완영책판 현존현황

『전주향교지』(2004년 9월 발간)에 의하면, 冊庫에 보관되어 있던 板木으로는 小學, 大學, 中庸, 論語, 孟子, 詩傳, 書傳, 周易, 朱子大全, 性理大全, 栗谷全書, 綱目, 東文選, 史記評林, 史記, 八家精選, 史要, 無冤錄, 東醫寶鑑, 三綱錄 등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장판각 내 서가에는 '1992년 11월 2일'자로 명기된 책판별 수량을 소형 합판에 적어 서가에 부착해 놓았다. 이에 의하면 장판각에는 資治通鑑綱目 1,780판, 朱子大全 745판, 栗谷全書 468판, 性理大全 561판, 史略 58판, 進書表 1판, 三綱錄 1판, 史記評林 475판, 東醫寶鑑 141판, 增修無冤錄 53판, 雜版 7판 등 총 4,290판(1板兩面刻)이 소장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전수조사결과 장판각에 소장된 책판의 수는 11종(기타포함) 4,290판이 아닌 10종 5,059판으로 총 769개의 책판을 더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전주향교 소장 완영책판 보유현황 조사결과표

冊板名	『全州鄉校誌』	冊板名	정리사업 후	비고
資治通鑑綱目	1,480	資治通鑑綱目	1,775	▽5
東醫寶鑑	141	東醫寶鑑	151	△10
朱子大全	745	朱子大全	1,471	△726
栗谷全書	468	栗谷全書	491	△21
性理大全	561	性理大全	576	△16
增修無冤錄諺解	53	增修無冤錄諺解	53	-
史記	475	史記	484	△9
史略	58	史略	56	▽2
三綱錄	1	湖南三綱錄	1	-
進書表	1	進書表		性理大全
기타	7	朱書百選	1	▽6
합계	4,290	합계	5,059	△769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종래 별도의 책으로 분류하였던 進書表의 경우 조사결과 『性理大全』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기타로 분류한 것 들 중에는 상당수가 『史記』『史略』에 포함되어 있는 책판이고 『朱書百選』도 1개판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87년 장판각을 건립할 당시 교임을 맡고 있던 홍두현씨는 「존경각증건기」에 현존하는 책판의 수가 9천5백여판이었다고 한다. 9천5백여판이 책판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책판에 서각된 面數를 가리키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책판의 개수라고 한다면 적어도 50% 이상이 1987년 이후에 추가로 없어져 버렸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面數를 의미한다면 후술하듯이 1987년 이후 완영책판은 거의 대부분이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주향교지』의 板木保有錄에 1920년 당시까지 현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小學, 四書三經, 東文選, 史記評林, 八家精選, 史要 등을 포함한다면 일제 초기까지 전주향교에 보존되어 있었던 완영책판은 대략 1만5천여개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나. 완영책판 보존실태

보존실태분석에 앞서 1987년 이후 전주향교 장판각의 보존환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장판각은 1987년에 건립되었으며, 건립이후 완영책판은 일단 이곳에 보존되었다. 그러나 장판각의 건물 형태는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했다기 보다는 대표적인 책판 보존 건물인 해인사 장경각을 모방하여 지은 20평대의 조그마한 건물에 지나지 않아, 그 보존환경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장판각의 위치가 중바위에서 발리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이 아니라 계곡 라인에 위치해 있어서 습지 환경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 부근에 조그마한 연못이 있었다고도 한다. 과학적 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곰팡이균 등의 서식을 막기 위해서는 습기제거가 주요한 관건임에도 이 두가지 점에 있어 장판각의 지형적 조건은 매우 열악하다.

둘째, 장판각의 북동쪽은 산의 능선을 깎아 세운 것이며, 장판각과의 거리가 좁기 때문에 통풍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다. 아울러 장판각 주변에 밀집된 조경으로 인해서 곤충 등의 피해에 노출되어 있었다.

셋째, 해인사 장경각과 같이 건물의 벽면 하단에 통풍을 위한 통로를 확보하였으나, 간격이 큰 철망으로 열기설기 묶어 놓아서 작은 곤충은 물론 쥐와 같은 유해 동물의 출입이 용이하게 되어 있다. 실제 장판각 내에서는 거미줄은 물론 쥐의 배설물 등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육안으로 관찰할 수 없는 곤충들에 의한 책판의 피해는 정량화할 수 없을 정도로 파악된다. 책판 이송시 책판 표면에 붙은 곤충의 유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장판각에는 보존을 위한 보안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장판각은 자물쇠에 의한 시건 장치 하나에 의존하고 있었다. 보안장치의 설비는 물론 화재를 대비한 소화기조차 놓여있지 않았다. 향교 내에 유숙자가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 정도 책판이 보존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이상할 정도이다.

이와같은 장판각의 보존환경으로 인하여 건물 내에 보존되어 있었다 해도 훼손의 진행은 오히려 가속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조사결과, 전주향교 장판각에 소장된 완영책판은 총 5,059개에 9,830면이 활판되어 있으며, 서각되지 않은 面數는 288면이다. 총 10종의 책판을 제작할 경우 책판은 10,621개 21,238면이 필요하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장판각 소장 완영책판의 현존율은 책판 47.6%, 面數 46.3%이다. 또한 중복된 면이 219면이므로 실제적인 면수 현존율은 45.2%[(10,118-507)÷21,238×100]이다.

〈표 3〉 전주향교 소장 완영목판 현존실태 비교

册 版 名	全州鄉校		現存書冊		缺落數		비고
	版木數	刻面數	版木數	刻面數	板木數	刻面數	
資治通鑑綱目	1,775	3,491	3,140	6,280	1,635	2,789	영인본(1987)
東醫寶鑑	151	291	488	975	473	684	완영판(1814)
朱子大全	1,471	2,804	2,570	5,140	1,099	2,336	완영판(1771)
栗谷全書	491	977	1,047	2,094	556	1,117	영인본(1994)
性理大全	576	1,127	1,067	2,121	485	994	영인본(1989)
增修無冤錄診解	53	103	101	201	48	98	완영판
史記	484	924	1,341	2,681	857	1,757	활자본
史略	56	109	280	561	224	452	책판본
湖南三綱錄	1	2	405	809	404	807	완영판(1903)
朱書百選	1	2	188	376	187	374	완영판(1795)
합 계	5,059	9,830	10,621	21,238	5,968	11,408	

* 책판의 비교는 傳存本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가능한 현존 책판으로 인출한 전적을 조사 비교하였으며,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1면당 행·자수가 동일한 판의 전적과 비교하여 추정하였다.

* 비교자료 : 『資治通鑑綱目』(보경문화사, 1987, 영인본), 『東醫寶鑑』(장서각 소장 완영본), 『朱子大全』(장서각 소장 완영본), 『栗谷全書』(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자료조사실, 영인본, 1994), 『性理大全』(공자문화대전편집부편, 산동우의서사, 영인본, 1989), 『增修無冤錄診解』(홍문각, 완영판 영인본, 1983), 『史記』(예문인서, 활자본), 『史略』(전주시립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고900-사134), 『湖南三綱錄』(국가전자도서관 DB, 완영판), 『朱書百選』(국가전자도서관 DB, 완영판).

다음으로는 전주향교 소장 완영책판의 보존실태를 층해, 균열, 보각·복각 등으로 나누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 충해

육안조사에 의한 충해피해의 정도는 94.49%가 충해를 입지 않았으며, 5.51%만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책판별로는 자치통감강목이 5.7%의 충해율로 가장 높았으며, 증수무원록, 사략, 호남삼강록, 주서백선 등은 육안에 의한 충해피해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증수무원록의 경우 몇 번의 印出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일부는 인쇄용 잉크로 도포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출이 진행된 경우 육안에 의한 충해피해조사는 불가능하다.

충해	면수(面數)										총계	100분율 (%)
	강목	동의보감	주자대전	울곡전서	성리대전	증수무원록 언해	사기	사략	호남삼강록	주서백선		
유	201	16	127	31	34	0	39	0	0	0	448	5.51
무	3,349	286	2,815	951	1,118	106	929	3	2	2	9,561	94.49

2) 균열

육안조사에 의한 균열의 정도를 보면, 98.1%만이 쪼개짐과 같은 균열피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90.19%의 책판은 쪼개짐이나 균열의 피해를 입고 있었다. 이와 같이 쪼개짐의 현상이 두드러진 이유는, 책판 좌우에 있는 마구리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무리한 압력을 가하여 책판과 마구리를 고정하였던 철심부를 중심으로 가로로 쪼개지거나 균열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마구리의 不存率이 92.2%인 점과 연관되어 있다.

쪼개짐의 경우 史略 98.2%를 비롯하여 자치통감강목(93%), 동의보감(95.4%), 울곡전서(96.5%), 성리대전(94.9%), 호남삼강록·주서백선(100%) 등이 90% 이상 확인되었다. 굵은 현상의 경우 길이 굵음은 육안으로 볼 수 없었으며, 너비 굵음이 대부분이었다. 너비 굵음은 평균 15.92%를 차지하였고, 그중 동의보감이 23.5%로 가장 높았다. 또한 비틀림 현상은 5.11%에 지나지 않았다.

구분	범위 (cm)	면수(面數)										총계	100분율 (%)	
		강목	동의보감	주자대전	울곡전서	성리대전	증수무원록 언해	사기	사략	호남삼강록	주서백선			
쪼개짐	유	2미만	424	20	1641	53	113	28	128	4	2	2	2411	23.83
	유	2~5	2315	172	816	832	564	28	586	105	0	0	5315	52.53
	유	5초과	490	96	174	64	416	10	113	1	0	0	1363	13.47
	무		285	14	311	33	59	40	141	2	0	0	993	9.81

구분	범위 (cm)	면수(面數)										총계	100분율 (%)	
		강목	동의 보감	주자 대전	율곡 전서	성리 대전	증수 무원록 언해	사기	사략	호남 삼강록	주서 백선			
너비 굵음	유	오목	362	34	216	2	121	5	58	0	0	0	798	7.89
		볼록	367	37	217	2	127	4	58	0	0	0	812	8.03
		무	2821	231	2508	978	904	97	852	112	2	2	8507	84.08
비틀림	유		287	0	88	0	74	3	63	2	0	0	517	5.11
	무		3263	302	2854	982	1078	103	905	110	2	2	9601	94.89

3) 보각·복각

탈첨자와 같은 보각(補刻)의 흔적은 289%인 292면에서 발견되었으며, 보각한 편 4점이 책판 이송과정에서 수습되었다. 복각의 경우 총 216개의 면이 2개 이상 복각되었고, 동일책판이 2개 복각된 것은 213개, 동일책판이 3개 복각된 것은 3개가 각각 보존되어 있다. 서각이 되지 않은 면도 288면에 달하여 285%였으며, 마구리가 없는 것은 92.2%에 달하였다.

복각 책판의 경우 서적의 간행시기 등과 연관지어 향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즉 복각 책판은 초기 開板으로 서적을 간행하다 마모되거나 훼손된 책판을 다시 제작하여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동일한 서적이라 하더라도 복각 책판의 사용 유무에 따라서 그 구체적인 간행시기는 차이를 보이며, 책판을 제작한 연도의 刊記와 해당 책판을 사용하여 책을 간행한 시기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서적의 刊記만을 가지고 서적의 간행연도를 확정할 수는 없으며, 동일한 간기를 가진 서적이라 하더라도 복각 책판의 인출면 유무에 따라서 그 간행시기를 달리 파악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각한 사례는 그것이 開板 당시의 것인지 아니면 추후에 誤字 등을 확인하고 改刻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구분		면수(面數)										총계	100분율 (%)
		강목	동의 보감	주자 대전	율곡 전서	성리 대전	증수 무원록 언해	사기	사략	호남 삼강록	주서 백선		
탈첨자	유	196	11	44	1	21	0	4	15	0	0	292	2.89
	무	3,354	291	2,898	981	1,131	106	964	97	2	2	9,826	97.11
무 판각		57	11	140	5	25	3	44	3	0	0	288	2.85
중복면수 2개(3개)		122(1)	7	51		25(2)		8				213(3)	2.11 (0.03)
마구리없음		1,667	151	1,382	490	467	29	418	55	1	0	4,662	92.2
兩面相異		2										2	0.02

다. 책판별 보존실태

1) 『資治通鑑綱目』 : 현존하는 『자치통감강목』 완영책판의 수는 총 1,775개이며 면수는 3,548면이다. 이중 書刻하지 않은 것이 57면이므로 실제 책면은 3,491면이다. 똑같이 復刻한 것은 123면으로 이중 1면은 3개가 있었다. 復面의 시기적 편차에 대해서는 刊本을 대조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육안관찰에 의하여 훼손 정도를 살펴보면, 충해율은 5.7%, 쪼개짐이 93%이며, 굽은 것은 너비 20.5%, 길이 0%였다. 비틀림은 8.1%이며 탈첨자가 있는 것도 5.5%였다.

2) 『東醫寶鑑』 : 현존하는 『동의보감』 완영책판의 수는 총 151개이며, 면수는 302면이다. 이중 書刻하지 않은 것이 11면이므로 실제 서각된 면수는 291면이고, 똑같은 면이 서각된 것은 7면이다. 육안관찰에 의하여 훼손 정도를 살펴보면, 충해율은 5.3%, 쪼개짐은 95.4%, 탈첨자는 3.6%, 굽은 것은 너비가 23.5%, 길이가 0%이며, 비틀린 것은 없다.

3) 『朱子大全』 : 현존하는 『주자대전』 완영책판의 수는 총 1,471개이며, 면수는 2,942면이다. 이중 서각하지 않은 것이 140면이므로 실제 서각된 면수는 2,804면이다. 똑같은 면을 復刻한 것은 51면이다. 육안관찰에 의하여 훼손 정도를 살펴보면, 충해율은 4.3%, 쪼개짐은 89.4%, 탈첨자는 1.5%였다. 너비가 굽은 것은 14.8%, 길이가 굽은 것은 0%였으며, 3%가 비틀림 현상이 있었다.

4) 『栗谷全書』 : 현존하는 『율곡전서』 완영책판의 수는 총 491개이며, 면수는 982면이다. 이중 서각하지 않은 것이 5면이므로 실제 서각된 면수는 977면이다. 똑같은 면을 복각한 것은 없다. 육안관찰에 의하여 훼손 정도를 살펴보면, 충해율은 3.2%, 쪼개짐은 96.5%, 탈첨자는 0.1%였다. 너비가 굽은 것은 0.4%, 길이가 굽은 것은 0%였으며, 비틀림 현상을 보이는 것도 0%였다.

5) 『性理大全』 : 현존하는 『성리대전』 완영책판의 수는 총 576개이며, 면수는 1,152면이다. 이중 서각하지 않은 것이 25면이므로 실제 서각된 면수는 1,127면이다. 똑같은 면을 복각한 것은 총 27면이며 이중 2면은 3개가 보존되어 있다. 육안관찰에 의하여 훼손 정도를 살펴보면, 충해율은 3%, 쪼개짐은 94.9%, 탈첨자는 1.8%였다. 너비가 굽은 것은 21.5%, 길이가 굽은 것은 0%였으며, 6.4%가 비틀림 현상이 있었다.

6) 『增修無冤錄諺解』 : 현존하는 『증수무원록언해』 완영책판의 수는 총 53개이며, 면수는

106면이다. 이중 서각하지 않은 것이 3면이므로 실제 서각된 면수는 103면이다. 육안관찰에 의하여 훼손 정도를 살펴보면, 충해율은 0%, 쪼개짐은 62.3%, 탈첨자 0%이었다. 너비가 굵은 것은 85%, 길이가 굵은 것은 0%였으며, 28%가 비틀림 현상이 있었다. 『증수무원록언해』의 경우, 최근 반출되어 印出한 관계로 책판의 표면에 먹물이 덧입혀져 있어 육안관찰에 의한 충해실태 파악은 불가능하였다.

7) 『史記』 : 현존하는 『사기』 완영책판의 수는 총 484개이며, 면수는 968면이다. 이중 서각하지 않은 것이 44면이므로 실제 서각된 면수는 924면이다. 육안관찰에 의하여 훼손 정도를 살펴보면, 충해율은 4%, 쪼개짐은 85.6%, 탈첨자 0.4%이었다. 너비가 굵은 것은 12%, 길이가 굵은 것은 0%였으며, 65%가 비틀림 현상이 있었다.

8) 『史略』 : 현존하는 『사략』 완영책판의 수는 총 56개이며, 면수는 112면이다. 이중 서각하지 않은 것이 3면이므로 실제 서각된 면수는 109면이다. 육안관찰에 의하여 훼손 정도를 살펴보면, 충해율은 2.7%, 쪼개짐은 98.2%, 탈첨자 13.4%이었다. 너비와 길이가 굵은 것은 보이지 않았으며, 1.8%가 비틀림 현상이 있었다.

9) 『湖南三綱錄』 : 현존하는 『호남삼강록』 완영책판의 수는 총 1개이로, 서문의 1쪽-2쪽에 해당한다. 육안관찰에 의하여 훼손 정도는 쪼개짐이 있을 뿐이다.

10) 『朱書百選』 : 현존하는 『주서백선』 완영책판의 수는 총 1개로, 권6의 19쪽-20쪽에 해당한다. 육안관찰에 의하여 훼손 정도는 쪼개짐이 있을 뿐이다.

V. 완영책판의 활용방안

책판은 그 특성상 그대로 활용하기에는 상당한 제약 요건을 가지고 있다. 장판각 소장 완영책판의 책판별 분류에서 알 수 있듯이, 현존하는 책판의 대부분은 한자로 쓰여진 것이 대부분이며 국한문 혼용은 『증수무원록언해』 단 1종류이다. 따라서 대중적인 호응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古書만을 접해왔던 일반인들에게 조선시대의 선조들이 어떻게 책을 만들었는가를 보여주는 1차적인 유물이라는 점에서 그 활용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전라도 기록문화전통의 정체성 수립 차원이라는 보다 넓은 틀 속에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1) 보존 수장고의 건립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의 장판각 건물에서 완영책판이 다시 보존되는 것은 장판간의 보존 환경과 시설로 보아 중요한 문화재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재고되어야 한다. 이에 전주향교와 전북대학교박물관은 유물위탁보관에 합의하고 위탁보관협약을 위한 절차를 마련 중에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므로, 차체에 완영책판을 과학적으로 보존 관리할 수 있는 수장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한 수장고의 기능 이외에 전시관, 교육관 등과 연계된 기록문화전시(박물관)관의 설립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목판의 효율적인 보존환경을 위해서 제작에 사용된 나무의 수종과 수분관계의 특성이 분석되어야 하고 그것을 토대로 목재의 수분 조정이 효과적으로 가능한 과학적 시설이 필요하다. 나무의 부후가 적어도 함수율 20~30% 이상 일 때 진행되므로 공기중의 상대습도와 나무의 함수율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²⁶⁾. 또한 충해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방충·항충 등의 소독처리가 원활해야 하며, 근본적으로 곤충이나 벌레의 접근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2) 문화재 지정 추진

이번 정리사업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국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사용했던 책판을 가지고 있는 사례는 '완영책판'이 유일하다. 현존하는 책판의 대부분은 개인 문집을 발간했을 때 사용하였던 문집책판과 불경 제작에 사용한 불경판 그리고 족보 책판이 대부분이며,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각종 도서를 발간했을 때 사용한 책판은 현재까지의 조사결과 규장각의 책판과 전주향교에 소장된 완영책판 뿐이다. 또한 현존하는 완영책판을 인출하여 각 도서관이나 박물관에 보관중인 완영판 전적과 샘플 비교를 한 결과 전라감영에서 사용했던 책판이 분명하게 밝혀졌으므로, 이에 대한 문화재의 지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본격적으로 전국적인 조사를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주요기관의 조사결과 전라감영의 책판처럼 감영의 책판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 따라서 속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전시관의 건립

기록문화자산에 대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진행된 완영책판의 공개는 향

26) 박상진, 2003. 「목판 및 종이[韓紙]의 재질분석」 『기록문화와 목판의 세계』, 한국국학진흥원, 138쪽.

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보존을 위해서는 일반인들에게 상온에서의 공개를 제한하며 연구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존설비 내의 공개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문화자산의 적극적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전라감영의 완영책판이 가지는 문화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라도 전시관의 건립이 필요하다.

전시관의 건립은 단순히 완영책판의 중요성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완판본의 고장, 전라도 전주의 지역이미지 브랜드로 확대 생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완영책판을 지켜내 온 전주향교 유림들의 활동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역사의 지킴이로서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냈던 이 지역 선비정신의 연계선상에 완영책판을 보존·관리해 온 전주유림의 노력은 주요한 교육적 귀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기적으로 볼 때, 전주향교 내의 전시시설 마련이 시급하다. 장기적으로 완영책판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가는 동시에 조속히 향교 내에 전시시설을 갖추어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할 것이다²⁷⁾.

4) 완영책판 연구지원

전라북도를 기록문화의 전통이 살아있는 곳이라고 평가하곤 한다. 그렇지만 세부적인 내용으로 접근해 들어가 볼 때, 그야말로 그에 대한 전문가는 고사하고 연구성과물조차 미미하다. 완판본의 고장이라고 하지만, 체계적으로 완판본에 대한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 등에 대한 지역 차원의 연구는 진행된 바가 거의 없다.

전라감영에서 발행한 완영판 전적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역시 단 한편에 불과하다. 이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완영책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지역연구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주학연구지원사업은 물론 별도의 예산 편성으로 통해 체계적인 종합연구지원사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누적된 연구성과를 통해서 대시민교육은 물론 지역정체성의 확립과 전통문화중심도시 전주의 실체를 설명해 낼 수 있을 것이다.

5) 문화콘텐츠의 구축 -서예산업과의 연계-

완영책판만으로는 산업화 방안에 제한적이다. 완영책판은 물론 완판본 전체에 대한 서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서예문화의 전통과 연계시켜서 각종 서

27) 전주시는 전주향교와 현 장판각 건물을 전시관으로 변경 사용하는 것에 합의하고, 전시관 설치를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준비 중에 있다.

체에 대한 종합적 콘텐츠 구축이 필요하다. 각 서체별 유형별 DB를 구축하여 이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료로 제공함으로써 전라북도의 문화적 역량을 알리는 한편, 유무형 문화자산의 산업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책판과 古書 및 서예작품들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원형콘텐츠 작업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을 단순히 ‘모아서 분류 정리’ 한다는 측면이 아니고 각각의 분류 내에 존재하는 글자 즉 ‘서체’에 대한 체계적인 DB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DB를 통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글자를 조합하여 원하는 단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출판은 물론 광고, 팬시산업, 캐릭터 산업 등 제반 문화산업에의 활용이 가능하다.

VI. 맺음말

이상으로 조선시대 전라감영에서의 서적 간행 상황과 당시 사용한 책판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완영책판은 조선시대 전라감영에서 서적을 간행할 때 사용하던 책판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朱子大全』, 『性理大全』 등 총 11종 4290판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조사한 결과 769개가 많은 총 10종 5,059개의 책판이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資治通鑑綱目』, 『東醫寶鑑』, 『朱子大全』, 『栗谷全書』, 『性理大全』, 『增修無冤錄諺解』, 『史記』, 『史略』, 『湖南三綱錄』, 『朱書百選』 등 총 10종이었다.

이들 서적을 모두 제작할 경우 책판은 10,621개 21,238면이 필요하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장판각 소장 완영책판의 현존율은 책판 47.6%, 面數 46.3%이다. 또한 중복된 면이 219면이므로 실제적인 면수 현존율은 45.2%이다.

육안조사에 의한 총해피해의 정도는 5.51% 258개이며, 90.19% 4,562개의 책판에 쪼개짐이나 균열의 피해가 조사되었다. 이런 이유는, 책판 좌우에 있는 마구리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무리한 압력을 가하여 책판과 마구리를 고정하였던 철심부를 중심으로 가로로 쪼개지거나 균열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마구리의 不存率이 92.2%인 점과 연관되어 있다.

탈첨자와 같은 補刻의 흔적은 2.89%인 292면에서 발견되었으며, 보각한 편 4점이 책판 이송 과정에서 수습되었다. 복각의 경우 총 216개의 면이 2개 이상 복각되었고, 동일한 책판이 2개 복각된 것은 213개, 동일한 책판이 3개 복각된 것은 3개가 각각 보존되어 있다.

완영책판은 조선시대 지방 관청에서 사용한 책판으로는 유일한 것으로 문화재적 가치는 매우 크다. 특히 전라도 지역의 기록문화전통과 연계해 볼 때 완영책판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심도있는 조사연구가 요망된다. 본고는 전주향교에 소장된 완영책판의 일차적인 전수조사에

한정한 것이다. 앞으로 각 책판별 분석과 서지학적 분석을 유기적으로 연결 보완해야 하며, 책판의 제작과정 및 刻手, 종이의 조달 등과 관련한 전라감영의 서적간행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보존과학적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건조 고목재 특히 책판에 대한 연구가 극히 미진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책판의 수량이 얼마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팔만대장경을 비롯 주요 기관의 소장량만해도 15만개²⁸⁾에 달한다. 이들은 고건축의 고목재와는 달리 板木에 글을 새겨 넣고 있기 때문에 충해피해를 보존처리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별도의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28) 책판의 주요 소장처는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비롯하여, 서울대 규장각 1만8천여점, 한국국학진흥원 4만여점, 전주향교 5천여점 등이다.

【참고문헌】

- 『資治通鑑綱』(보경문화사, 1987, 영인본),
『東醫寶鑑』(장서각 소장 완영본),
『朱子大全』(장서각 소장 완영본),
『栗谷全書』(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자료조사실, 영인본, 1994),
『性理大全』(공자문화대전편집부편, 산동우의서사, 영인본, 1989),
『增修無冤錄諺解』(홍문각, 완영판 영인본, 1983),
『史記』(예문인서, 활자본),
『史略』(전주시립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고900-사134),
『湖南三綱錄』(국가전자도서관 DB, 완영판),
『朱書百選』(국가전자도서관 DB, 완영판).
- 윤병태, 1972. 『한국서지연표』, 한국도서관협회
유태일, 1981. 『완판방각소설의 문헌학적 연구』, 학문사
천혜봉, 2001. 『한국전적인쇄사』, 범우사
전주문화사랑회 편, 2003. 『전라북도의 기록문화전통과 현대적 계승방안』, 전라북도
한국국학진흥원, 2003. 『기록문화와 목판의 세계』, 2003 문중유물 특별기획전 도록
전주향교, 2004 『全州鄉校誌』
이희권, 2005. 『증보판, 역사로 보는 전라도』, 신아출판사
- 전북대박물관, 2005. 『전주향교 장관각 목판정리사업 최종보고서』, 전주시
강혜영, 1983. 「조선조 전주지방 목판인쇄문화고」 『국회도서관보』
유기석, 1990. 「호남지역 전적문화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치우, 1999. 「조선조 전기 지방간본의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옥영정, 2002. 「호남지방 목활자본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태영, 2002. 「전라감영의 인쇄문화가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 『향토사연구』 제13·14집
최지선, 2005. 「조선시대 호남관찰영본에 관한 서지적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 Study of Woodblocks of the Local Government Office at Jeollado in Joseon Dynasty

Hong, Seongduk
Kim, Chulbae

This study researches the publishing circumstances and the woodblocks used in the local government office at Jeollado in Joseon dynasty. Wanyung woodblocks indicate the printing blocks which were used in Jeolla local office. Known so far, there were 11 sorts of 4,290 blocks existing there, including *Seongridaejeon* and *Jujadaejeon*. Actually, there has 10 sorts of 5,059 blocks been kept. They are *Jachitonggam*, *Donggeuibogam*, *Jujadaejeon*, *Yulgokjeonseo*, *Seongridaejeon*, *Jeungsuwonrokeonhae*, *Sagi*, *Saryak*, *Honamsamgangrok*, and *Juseobaekseon*.

To print and bind all of the books mentioned above, 10,621 woodblocks and 21,238 pages are needed. Judging from this results, the current existing rate of jangpangak woodblocks is 47.6% of blocks and 46.3% of pages each. Considered the 219 redundant pages, the actual page rate is 45.2%.

Damage from insects are investigated as 5.51% and 90.19% of the woodblocks have been splitted or cracked by the examination of the naked eyes. The woodblocks were splitted or cracked by strong pressure around the nail on them when they were removed, and it had a strong relationship with the absence rate of the handles of them, 92.2%.

The traces of added or omitted words were discovered on 292 pages(2.89%), 3 revised letters were collected during transporting them. 216 pages of blocks were newly produced, 213 blocks were redundant, and 3 of them had 3 pages.

Wanyung woodblocks are the only blocks that the local government office had in Joseon dynasty, so its value as cultural treasure is enormous.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of Jeonju with the record culture tradition of Jeollado, the effective preservation and maintenance and in-depth study is imperative.

[Key words] publication culture of Joseon dynasty, the Local Government Office at Jeollado, Jeonju Hyanggyo, Woodblocks, Wanyung Woodblocks